

화순군,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배치...365일 운영 체계 돌입



최근 자연 재난 및 겨울철 대형화재·산불 등 사회재난 증가 긴급재난문자·상황 전파·단계별 비상근무 소집 등 수행

화순군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안전상황실 주간 근무는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야간 및 토·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대처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자연 재난 및 겨울철 대형화재, 산불

등 각종 사회재난의 증가로 신속한 초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군에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해 실천하기에 이르렀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문

자, 마을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 및 보고하고 단계별로 직원 비상근무를 소집하는 등 재난 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최근 오성 지하차도 침수 참사나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기습한파 등 각종 사고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관계기관과 더욱 강화된 공조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대처하는 등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도와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 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되며,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

하다. 위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

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 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군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 창립총회

구례읍 도심 골목길 빵집 활성화를 위한 제빵사 11명 모임 결성

구례군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1월 15일 구례읍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심 골목길 빵집 활성화를 위한 '구례밀 빵을 만드는 사람들'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구례밀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빵사 11명이 관내 제빵사들의 정보교환 및 소통을 목적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지역주민과 협력해 각종 행사와 구례밀(구례에서 생산된 우리 밀)을 홍보하고 빵지 순례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

정이다. 초대 회장인 이은하 대표는 "수입 밀가루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구례밀로, 구례만의 건강 빵을 만들어 낸다면 구례의 큰 자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역량 있는 제빵사들이 만든 구례밀 빵은 구례를 알리는 효자 상품이 될 것"이라며 "군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문화원, 자연생태계의 보고 '담양하천습지를 기록하다' 발간



담양문화원(원장 강성남)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담양하천습지를 기록하다'를 발간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담양군이 전라도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활성화에 기

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담양문화원에서는 김동수 전 전남대학교 교수, 송국 순천군충박물관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 및 연구원들과 함께 담양하천습지에 대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습지의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 현황과 문화적 활용에 대한 책자 '담양하천습지를 기록하다'를 펴냈다. 책자에는 담양하천습지에서 촬영한 동식물과 인문자료 영상정보를 담은 QR을 삽입하여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다 생생한 습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에 수많은 하천 습지가 있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도 많지만 담양하천습지가 환경부에

서 최초로 국가하천 습지로 지정된 배경이 있는 것은 바로 담양의 자랑인 '대(竹)'가 영산강 강변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재청은 이 일대 대나무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렇듯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가의 두 기관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습지이다. 이곳이 영원히 담양의 룩팔로서 기후 위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담양하천습지의 자연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강성남 담양문화원장은 "지속적으로 '담양향토문화총서'를 기획발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재활용품 모으면 '돈' 됩니다"

장성군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먼저 폐건전지나 투명페트병을 규격에 상관없이 10개씩 모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20리터 규격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받을 수 있다. 종이팩 10개를 모으면 두루마리 휴지

1개를 돌려받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활용품 20개를 모아야 교환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개'로 기준을 낮췄다"면서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	